

新年辭

2008년에는 세계 5위권 광산업 선진 국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해



이기태 한국광산업진흥회 회장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사장

21세기 모든 산업의 기반산업으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는 광산업의 기틀마련에刻苦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과 관련 기관단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지난 새로운 밀레니엄 2000년 시작과 함께 대동한 광산업 육성 및 집적화 계획은 그 동안 세계시장의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광산업에 대한 믿음과 육성에의 의지를 갖고 달려온 지난 7년간의 노력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 다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광산업 육성 및 집적화 계획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국내 광산업 역사에 시금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저희 한국광산업진흥회는 한국의 광산업을 세계시장에 알리고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 큰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제는 기반구축 단계에서 정착단계로 진입하는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될 2008년에는 세계 5위권 광산업 선진 국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장기적으로 한국의 광산업을 세계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혼신의 노력으로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광산업 1단계 사업을 돌이켜보면, 한국광산업진흥회 설립을 비롯하여, 고등광기술연구소, 한국광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광통신연구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연구센터 등 연구





기관 설립과 광기술인력교육센터 등 인재양성사업, 광정보지원센터 및 특화장비 연구센터 구축, 광주 첨단산업단지 내 광산업 집적화단지조성 등 산학연관 연계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광산업 육성 및 집적화 기반구축을 성공리에 마쳤으며, 2단계사업 추진 중에는 전자부품연구원 광주지역본부가 이곳에 자리를 잡았고, LED클러스터구축사업도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된 광산업 육성 2단계 사업에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으로 광통신 부품 및 광반도체 분야 등 1단계 기 구축 인프라의 적극 활용을 통한 상업화 촉진 즉, 신제품 연구개발지원을 통한 광산업체의 실질적인 매출증가를 촉진하고, '꿈의 통신망'이라고 불리는 FTTH(택내광가입자망) 2만 가구 시범구축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올해부터는 국내 대형 통신회사를 중심으로 FTTH 120만가구 확대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는 회원사 및 광관련 업체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

적으로 광산업정보지원사업, 해외마케팅지원사업과 해외우수인력유치지원사업, 광산업체교류지원사업 등을 계속추진하고, 국내 최초로 LED(반도체 광원)를 이용한 경관조명 및 도로표지판 등 LED신호/조명시범단지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표준화사업, 신조명센터건립사업, LED 15/30 보급 프로젝트 등에도 동참하여 확대일로에 있는 광산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 한국광산업진흥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과 광산업체 관계자 분들, 그리고 광산업육성지원 유관기관 관계자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해년 한해에도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 원단

新年辭

2단계 사업에 3,863억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반도체 광원과 광통신분야를 중심으로 18개 사업을 집중 육성



박광태 광산업육성위원회위원장
광주광역시장

희망찬 정해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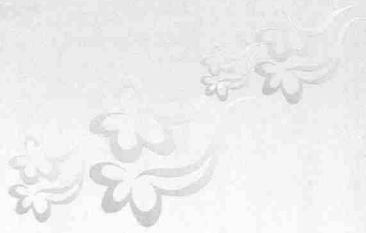
광산업 가족 여러분 모두 금년에는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 동안 북한 핵실험과 한미 FTA 논란 등으로 우리 사회에 많은 시련과 갈등이 지속되고,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환율인상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광주는 민선4기를 맞이하여 142만 시민과 함께 역동적인 시정을 펼침으로써 시정의 각 분야에서 풍성한 결실을 거둔 보람 있는 한 해였습니다.

경제살리기와 문화수도조성을 시정운영의 양대 축으로 삼고 시민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1등 광주건설의 탄탄한 기반이 갖추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큰 성과는 광산업을 비롯한 3대 주력산업의 집중적인 육성과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만년 소비도시였던 광주가 생산도시, 수출도시로 확실히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출이 금년 11월말 현재 작년 실적을 크게 상회하는 82억불을 기록하고, 수출증가율과 생산증가율 면에서 전국 광역시 중 1위의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집중적인 산업육성정책은 국내외 투자가의 활발한 투자로 이어져, 지난 한 해 동안 99개 기업과 2,901억원의 팔목할 만한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용지가 완전 분양되면서 국내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으며, '글로벌 비즈니스 경영대상' 을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역특화산업 육성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광산업은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구축과



270여개의 광기업체가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등 지역의 중심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광기술원과 한국광산업진흥회, 고등광기술연구소, ETRI광통신연구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지역본부, 전자부품연구원 광주지역본부 등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시설과 각종 장비를 구축하고 13개 학교와 기업체에 광관련 인력양성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그 결과 1999년에 47개사에 불과했던 광관련 업체가 2006년말 현재 270여개사로 늘어나는 등 국내 유일의 광관련 클러스터가 형성되었으며, 광산업체의 매출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 경쟁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각오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13만 4천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여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우선 지역의 3대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 디지털가전산업, 광산업을 한층 더 고도화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중심산업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4대 전략산업과 5대 신기술응용산업의 성장기반도 탄탄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특히 광산업은 2008년까지 추진될 2단계

사업에 3,863억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반도체 광원과 광통신분야를 중심으로 18개 사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광산업을 키워나가면 목표연도로 잡고 있는 2010년에는 광주의 광산업 매출이 7조 200억원에 이르는 한편, 5만여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고, 480여개의 광관련기업체가 입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광산업 도시로 하루빨리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광산업 가족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저와 6천여 공직자도 '경제가 살아야 시민이 산다'는 각오로 모든 시민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1등 광주건설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광산업의 길잡이 역할을 충실히 해 오고 있는 「광산업 정보」誌의 무궁한 발전을 빌며,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